

고구려 장안성의 성벽 축조 과정에 대한 재검토

정 원 철*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각자성석을 통해 본 장안성 성벽의 축조 과정 |
| 2. 고구려 장안성의 기본 형태 | 5. 맺음말 |
| 3. 각자성석의 발견과 판독 | |

〔 논문 요약 〕

고구려 장안성은 6세기 중반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결합한 평산성 형태의 도성이다. 이 장안성에서는 글자를 새긴 성돌이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장안성의 축조 시작 시기와 축조 방향 및 거리, 관리 감독자의 출신지와 관등명, 인명 등 장안성의 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성돌에 기록된 축조 시작 시기와 축조 방향 및 거리 등은 장안성의 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장안성에서 발견된 각자성석의 내용을 재분석하여 장안성의 성벽 축조 과정을 추정해 보았다. 장안성은 늦어도 "丙戌"年인 566년에는 내성부터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569년에 해당하는 "己丑年"에는 내성의 일부 구간이나 외성 남벽의 서쪽 구간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안성의 성벽은 고구려가 천도를 단행한 586년 이후에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己酉年"인 589년에도 외성의 동쪽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장안성의 성벽은 결국 늦어도 "丙戌年"(566년)부터 "己酉年"(589년) 이후까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축조된 대공사였다.

주제어: 고구려 평양성 장안성 각자성석

* 서해문화재단 연구원

I. 머리말

고구려의 초·중기 도성 체제로는 오녀산성-하고성자, 환도산성-국내성, 대성산성-안학궁(또는 청암리토성)과 같이 산성과 평지성이 한 Set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6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대신하여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합친 새로운 형식의 도성 체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장안성의 축성이 그것이다. 보통 산성과 평지성을 합친 형식의 성곽이기 때문에 “平山城”이라고 부르는데, 평산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東晉시기의 建康城에서 그 시작을 찾은 예가 있기도 하나 유사한 점과 함께 차이점도 크기 때문에 그 기원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안성의 축성은 당대의 고구려 뿐 만 아니라 백제 사비성 축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후에는 역대에 걸쳐 “평산성” 형식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평산성의 시작이라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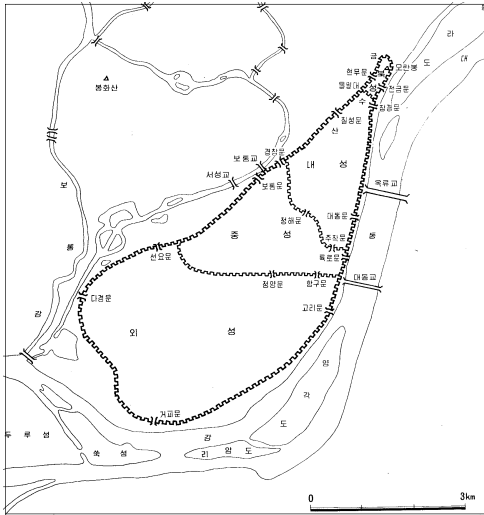
한편 장안성에서는 글자를 새긴 성돌(이하 刻字城石)이 여러 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 각자성석에는 장안성 축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역사,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금석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각자성석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고구려 장안성의 성벽 축조 시기와 축조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구려 장안성의 기본 형태

고구려 장안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으나¹⁾ 현재는 거의 대부분 평양시 중심부인 중구역과 평천구역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성으로 보고 있다. 장안성은 산성과 평지성의 형태와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산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북성-내성-중성-외성 4개의 부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곽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쪽에 있는 북성을 기점으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면적이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의 초승달 모양을 띄고 있다. <그림1> 성곽안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서쪽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북쪽에 자리한 북성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성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이룬다. 내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형성하는데 북성에서 내려와 연결되는 산지와 구릉지대가 결합된 지형을 이룬다. 그리고 중성은 구릉지대와 평지가 반쯤 섞여 있는 지형적 특징을 보이는데 중성의 가운데 지점에는 대체로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곽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외성구간은 모두 평지 지대로 성내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

1) 관련 견해에 대해서는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참고.

북쪽의 낮은 산지를 제외한 동, 남, 서쪽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장안성을 둘러싸고 흐르기 때문에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한다.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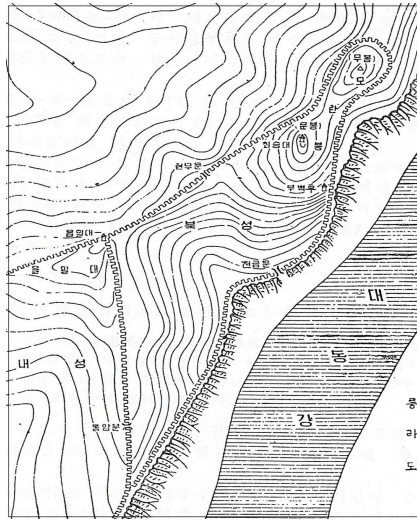
〈그림1〉 장안성 평면도(『조선유적유물도감』 3) 〈사진1〉 현재의 평양성(구글 위성사진)

장안성은 성곽의 바깥쪽 둘레 길이만 약 16km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 각 성을 구분하는 북성의 서남벽, 내성의 서남벽, 중성의 남벽까지 포함했을 경우 총 길이는 약 23km, 성곽의 총면적은 약 12만km²에 달한다. 이를 각각 구분하여 성내 시설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먼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성은 내성의 북장대에 해당하는 을밀대에서 북동쪽으로 성벽이 연결되어 모란봉의 문봉, 무봉을 돌아 대동강변의 강안 절벽을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벽루와 전금문, 청류벽마루를 따라 동암문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하는 성이다.²⁾ 〈그림2〉 북성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하였다는 설³⁾과 내성의 별궁·이궁이라는 설 등이 있다.⁴⁾

2) 최희립,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3쪽.

3) 최희립은 북성을 궁성(내성)의 철성(凸城)으로 보았다.(최희립, 「평양성을 쌓는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33쪽.

4) 전중준명, 「東 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백산학보』 67, 2003, 513쪽.



〈그림2〉 고구려 장안성 북성도(『고구려 평양성』, 22쪽)

내성의 성벽은 내성 장대인 을밀대에서 시작하여 만수대 북서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내려 온 뒤 만수대 남서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구릉을 따라 내려오다 신암동(정해문터 남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 대동강 기슭에 이른 다음 대동강 서쪽 단애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와 다시 을밀대에 이르는 구간에 구축된 성이다.⁵⁾ 〈사진2〉 내성은 장안성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으로 왕이 거주하는 궁성이 바로 내성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내성에는 북장대인 을밀대를 비롯하여 서북문인 칠성문과 남서문인 정해문, 남문인 주작문 그리고 동문인 대동문과 동암문, 장경문 등의 성문이 나 있다. 〈사진3〉

중성은 내성 남벽 남쪽에 동서로 나란히 놓여 있는 해방산, 창광산, 안산 등의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대동교부터 안산까지 구릉지대의 남단을 따라 동서로 가로 질러 성벽을 쌓은 구간의 성이다. 내성의 북서벽은 보통강의 동쪽 강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북서쪽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다시 연장되어 중성의 북서벽이 되고, 내성 남서벽은 중성의 북동벽이 된다. 또한 중성 동벽은 대동강 서쪽 강안을 따라 내성 동벽과 연결되는데 그 길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 중성의 동문은 육로문이며 북문으로는 정해문과 주작문이 있는데 이 성문들은 내성의 남문 역할을 겸한다. 중성 남문으로는 정양문과 함구문이 있다. 한편 중성을 쌓은 시기에 대해서 대체로 고구려 때 쌓은 것으로 보는 견해⁶⁾와 고려 초에 쌓은 것으로 보는⁷⁾ 견해 차이가 있다.

5) 최희립,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2~43쪽.

6) 최희립,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6~35쪽.

7)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23쪽; 전중준명, 「東 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백산학보』 67, 2003, 509~510쪽.



〈사진2〉 내성 성벽(『조선유적유물도감』 3) 〈사진3〉 내성 을밀대 밑 부분(『조선유적유물도감』 3)

외성은 보통강의 동쪽 강안과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거쳐 대동강의 서쪽 강안을 따라 서, 남, 동벽을 축조하였으며 중성의 남벽을 북벽으로 이용되었다. 성문으로는 동서남북에 걸쳐 하나씩 나 있는데 각각 고리문, 거피문, 다경문, 선요문이 있다. 외성 내부에는 격자형으로 생긴 도로와 도시 유적이 확인되었다.⁸⁾

Ⅲ. 각자성석의 발견과 판독

평양 장안성의 성벽에서는 특이하게 각자성석이 여러 점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실물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내용만 전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합치면 모두 6종류가 확인된다. 설명의 편의상 발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각자성석-己丑年五月廿八日始役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侲利造作

1) 각자성석은 청나라 고증학자인 유희해(劉喜海, 1793~1853)가 모아 편집하고 유승한(劉承幹)이 보유(補遺)한 『海東金石苑』⁹⁾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66년 발견되었으나 각자성석의 발견 지점은 알 수 없으며, 김정희가 제발(題跋)을 적었던 1829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¹⁰⁾

글자는 모두 12행 24자¹¹⁾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海東金石苑』에서 “第二刻 乃金正

8) 한인호·리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 도시 리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

9) 2004년에는 『海東金石苑』上海圖書館 所藏 劉喜海 定本(原稿 정리본), 國會圖書館이 출간되었다.

10) 여기에 덧붙여 실려 있는 김정희의 題跋에는 “此刻 出於丙戌 今六十四年 不可復覓…… 此己丑當爲長壽時後一千三百八十一年 金正喜書”로 되어 있다. 김정희는 己丑年을 長壽王 때의 己丑(서기 449년)으로 보았는데 그로부터 1381년 후는 1829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성석이 발견된 해는 이 해에서 64년 전 丙戌인데 이때가 바로 1766년이다.

11) 劉燕庭 編, 『海東金石苑』, 아세아문화사, 1976.

喜重書 燕庭先生謂是樵本 亦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식 탁본을 모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金正喜重書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또한 평양성에 사용된 고구려 성들의 기본 형태가 썩기꼴 형태로 성들의 앞면 길이와 너비가 4~5:3 정도의 비율을 가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¹³⁾을 통해 볼 때 그 열이 너무 길다고 여겨진다.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각자성석이 5~8열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원래는 성들의 길이와 너비 비율에 맞춰 ②각자성석이나 ④각자성석과 같이 7~8열 정도로 글자를 배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글자 관독에 있어서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축성 시기를 알려주는 기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海東金石苑』의 기년과 같이 “己丑年”을 따르고 있는 것에 반해 田中俊明은 “己酉年”으로 추정하였다.¹⁴⁾

2) 각자성석

7	6	5	4	3	2	1	
(作)					(三)	己	1
節	俳	物	東	自	月	酉	2
	湏 (湏?)	苟	十	此	廿	年	3
	百	小	二	下	一		4
矣	頭	兄	里	向	日		5



<사진4> 평양 장안성 ②각자성석(『조선유적유물도감』 3, 95쪽)

12)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42쪽.
 1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200쪽; 서길수, 「고구려 축성법 연구(1)」, 『고구려 산성 연구』, 학연문화사, 1999, 339~344쪽.
 14) 田中俊明, 「高句麗長安城城壁石刻の基礎的研究」, 『史林』 68-4, 1985, 137쪽; 「東 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白山學報』 67, 2003, 509쪽.

② 각자성석은 『海東金石苑』과 『三韓金石錄』에 모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三韓金石錄』에 인용된 『平壤志』에는 “純廟己丑 大漲 九疊城潰決 而出二誌石”으로 되어 있는데 ②각자성석은 바로 己丑年인 1829년 큰 홍수에 九疊城(평양의 외성)이 무너지면서 나온 “二誌石”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海東金石苑』 김정희 제발(題跋)에는 “又得一石 於外城烏灘下……”로 되어 있으며, 『三韓金石錄』의 편찬자인 오경석(吳慶錫)은 함풍(咸豐) 을묘년(乙卯年)인 1855년 “烏灘江涯”에서 이 각자성석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¹⁵⁾ 여기서 오탄(烏灘)은 양각도(羊角島) 위쪽 여울에서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한 외성의 남벽으로 추정된다.¹⁶⁾

성들의 크기는 『三韓金石錄』에는 高(높이) 1尺4寸, 너비(寬) 1尺 7寸, 글자지름(字經)은 1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 9조각으로 나뉘어 일제시대 때 석고를 사용하여 고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18cm, 두께 9cm이다. 실물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제6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4>



〈사진5〉 평양 장안성 ②각자성석(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글자는 모두 7행 27자이며 글자체는 해서체이다. 1열에 있는 기년에 대해서 『海東金石苑』과 『三韓金石錄』에는 모두 “己丑年”으로 기록하였으나 실물이나 탁본을 통해 볼 때 “己酉年”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己酉年”으로 판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계의 채희국, 최희림 등은 『海東金石苑』과 『三韓金石錄』의 내용을 따라 “己丑年”으로 판독하였다. 2행은 성들이 훼손되면서 원래 있던 글자가 거의 모두 떨어져 나가 실물을 확인할 수

15) “此刻 今在平壤府治西十里 烏灘江涯 余於咸豐乙卯 作燕臺之行路 出箕城 謁殷師墓 歷覽井田故地 因沿江 而至閑似亭 訪得此刻于故城潰決處 盖高句麗築城時 所刻也”

16)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30~31쪽.

없는 상황인데 『海東金石苑』에서는 “五”¹⁷⁾자로 『三韓金石錄』에서는 “三”자로 판독하여 차이를 보인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결실되기 이전의 탁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운 형편인데<사진5> ③각자성석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三月”로 판독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다.¹⁸⁾ 감독자의 출신지로 여겨지는 5열의 2번째 글자는 『海東金石苑』에서는 “省”자로 『三韓金石錄』에서는 “苟”자는 판독하였는데, 북한학계에서는 “省”자를 따르고 있는 반면¹⁹⁾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은 “苟”로 판독하였다. 그리고 인명에 해당하는 6열의 2번째 글자는 『海東金石苑』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였고 『三韓金石錄』에는 “湏”로 판독하였다. 현재는 대체로 『三韓金石錄』과 같이 “湏”²⁰⁾자로 판독하는 것과 “須”²¹⁾자로 판독하는 2가지 다른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3) 각자성석

6	5	4	3	2	1	
節	位	內	向	廿	己	1
矣	使	[中](口)	□(西)	一	酉(丑)	2
	尔	百	[下](十)	日	年	3
	丈	頭	二	自	三	4
	作	上	里	此	月	5
				下		6

③ 각자성석은 『三韓金石錄』에 인용된 『平壤志』 “純廟己丑 大漲 九疊城潰決 而出二誌石”에서 ②각자성석과 함께 1829년 발견된 또 다른 하나의 “誌石”이다.²²⁾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三韓金石錄』에 나타난 성들의 크기는 높이(高) 1尺 5寸, 너비(廣) 1尺 7寸, 글자 지름(字經)은 1寸 3分이다. 글자는 총 6행 28자²³⁾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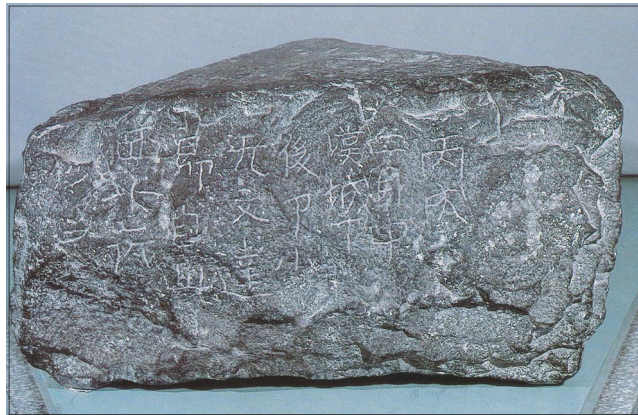
17) 유승한(劉承幹) 보유(補遺) 『海東金石苑』에는 “三月”로 수정되어 있다.
 18) 민덕식, 여호규, 김희선, 김창호 등은 “三月”로, 최희림, 채희국은 “五月”로 보았으나 진중준명은 □로 보류하였다.
 19)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20) 여호규,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21) 田中俊明, 「동아시아 도성제에서 고구려 장안성」, 『백산학보』 67, 2003; 김창호, 「고구려 금석문의 인명 표기」,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9;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22) 최희림은 ①, ②각자성석이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최희림,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18쪽)
 23) 『三韓金石錄』에 인용되어 있는 『平壤志』에는 모두 27자로 되어 있었다.(己丑年三月二十一日自此下向東下二里內中百頭上位使尔伐節矣) 여기에는 3행의 2번째 모르는 글자를 “東”자로, 5행의 4번째 “丈”자를 “伐”로 판독하였고 그 아래의 “作”는 판독하지 못하였다.

먼저 기년에 대해서는 『三韓金石錄』을 따라 “己丑年”을 따르는 견해²⁴⁾와 “己酉年”²⁵⁾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三韓金石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민덕식의 경우에는 3행의 3번째 글자인 “[下]”자를 “十”로 4행 2번째 글자 “[中]”을 “口”로 판독하였다. “十”자와 “下”자는 자형이 비슷하여 오독하기 쉬우며 “下向口下”라는 표현이 어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口”자와 “中”자 역시 자형이 비슷하여 오독하기 쉽다고 보면서 고구려의 5부 가운데 內部가 있음을 염두하여 “口”로 판독하였다.²⁶⁾ 그밖에도 김희선은 2행 3번째 글자 “日”을 “罒”로 4행 1번째 글자 “丙”를 “丙”자로 보았다.²⁷⁾

4) 각자성석

8	7	6	5	4	3	2	1	
涉	西	節	兄	後	漢	二	丙	1
之	北	自	文	口	城	月	戌	2
	行	此	達	小	下	中	(十)	3

④ 각자성석은 1913년 大同門에서 4町정도 떨어진 성벽을 파헤치며 牧丹帶 아래의 도로를 개수할 때 발견되었는데,²⁸⁾ 이곳은 지금의 내성 동벽과 연결되는 옥류교 부근²⁹⁾의 慶上洞³⁰⁾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평양 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돌의 크기는 높이 1尺, 너비 2尺 2寸, 길이 1尺이며, 글자 지름(字經)은 1寸이다.



〈사진6〉 장안성 ④각자성석(『조선유적유물도감』 3, 95쪽)

24)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25) 田中俊明, 「동아시아 도성제에서 고구려 장안성」, 『백산학보』 67, 2003; 여호규,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심정보,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한 문제점 I, II」 『북방사논총』 6, 2005.
 26)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45쪽.
 27)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6쪽.
 28) 淺見倫太郎, 「大同江岸發見の高句麗古城石刻」, 『朝鮮及滿洲』 83, 1914, 46쪽(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38쪽의 것을 재인용함)
 29)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쪽.
 30)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외국문출판사, 95쪽.

글자는 총 8행 2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체는 해서체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글자체가 분명하여 판독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여겨지는데 다만 성벽을 축조한 해당 월에 대해서는 “丙戌” 바로 아래에 “十”자를 추가시켜 “十二月”로 보는 견해³¹⁾와 “十”자를 빼고 “二月”로 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해당 성돌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나 사진을 통해 볼 때 “丙戌”아래에 “十”으로 볼 만한 자획의 여부나 성돌이 깨어졌다는 별도의 흔적은 확인하기 힘들다. <사진6> 그와 함께 『三國史記』 축성 관계(축성, 수성, 보수, 증축 등)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12월 축성 관계 기록이 1건도 없는 반면 2월에 축성하였다는 기록은 전체 36건 중 1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고구려에서 축성은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월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을 특이하다. 따라서 필자는 12월 보다는 2월의 가능성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한다.

<표 1> 삼국시대 월별 축성관계 기록³²⁾

월 나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 상	계
고구려	1	16	·	·	·	·	9	8	·	1	·	·	1	36
백제	·	12	1	·	3	·	17	10	·	4	·	·	3	50
신라	3	14	2	·	6	·	9	6	23	3	·	1	10	81
계	4	42	3	·	9	·	35	24	23	8	·	1	14	167

5) 각자성석

5	4	3	2	1	
尺	(?)	此	兄	卦	1
治	里	東	加	婁	2
			群	盖	3
	四	廻	自	切	4
		上		小	5



<사진7> 장안성 ⑤각자성석(『조선유적유물도감』 3, 94쪽)

31) 최희림, 민덕식, 김희선 등은 12월로 판독하였으나 田中俊明, 여호규, 김창호 등은 2월로 판독하였다.

32) 이원근, 『삼국시대 성곽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년, 509쪽.

⑤ 각자성석은 1964년 최희림에 의해서 장안성 내성 서남모서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해문이 있던 내성 남벽으로 당시 각자성석은 남산병원 울타리 밑에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³³⁾ 지금의 남문동 인민대학습당 서북쪽에 해당하며 내성의 서벽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완만하게 꺾이며 해방산 북사면 구릉을 타고 대동강 연안으로 나아가는 지점이라고 한다.³⁴⁾ 즉, 그 위치는 최희림이 설명한 내성의 서남모서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성의 동남모서리에 더 가까우며 굴곡진 내성 남벽의 가운데 지점에서 약간 남쪽에 해당한다. 또한 ⑤ 각자성석은 유일하게 해당 성벽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예에 속하는데 그 위치는 성벽 기저부에서 3번째 단에 해당한다.³⁵⁾ 성벽은 현재 5단까지 남아 있는데 가장 하단의 성벽은 매몰되어 윗부분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³⁶⁾ 성들의 크기는 다른 성들에 비해서 약간 작은 편으로 26cm(너비)×17cm(높이)이다.³⁷⁾ 총 5행 17자가 새겨져 있으며 글자체는 해서체이다. 〈사진7〉

다른 각자성석과 달리 기년을 새겨 넣지 않아 정확한 년대를 파악하기 힘들다. 기년을 제외하면 그 아래 부분은 다른 각자성석과 마찬가지로 감독자의 출신지와 관등명, 인명, 담당 구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판독에 있어서는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일부는 견해 차이도 확인된다. 田中俊明은 4행에 있는 “里”자 위에 글자는 없는 것으로 보았고, 최희림은 제4행의 “里”자 위에 마모된 부분에 “六”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³⁸⁾ 김창호는 제4행의 “四”를 “卍”으로 판독하였다.³⁹⁾

6) 각자성석-本城四十二年畢役

⑥ 각자성석은 1730년 尹游가 쓴 『平壤續志』 城池 北城條에 관련 내용이 전한다. 1714년 監司 閔鎮遠이 복성을 荆築할 때 발견한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여기에는 “旧城底有石刻曰本城四十二年畢役 古人之不計功力 而以堅壤爲事者 可見矣 俗傳 旧城蒸土築之 今觀居城底者鑿土非斧斤不入 種樹近拳 而不深入 蒸土之設 恐非虛也”라고 하였는데, “旧城底有石刻”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각자성석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석각의 내용인 “本城四十二年畢役”은 석각의 전체 기록을 적은 것인지 핵심 줄거리만 요약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안성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복성을 쌓는데 42년이나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장안성을 쌓은 전체 공사 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⁴¹⁾

33)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쪽.

34) 여호규,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71쪽.

35)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쪽의 사진 설명.

36) 여호규,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71쪽.

37) 여호규, 「평양성」,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재단, 2005, 71쪽.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에는 성들의 규격을 30cm×20cm로 파악하였다.

38)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20쪽.

39) 김창호,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9, 68쪽.

40)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37쪽.

41)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47~48쪽.

IV. 각자성석을 통해 본 장안성 성벽의 축조 과정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陽原王 8년(552년) 장안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平原王 28년(586년) 장안성으로 이도(移都)하였다고 한다.⁴²⁾ 이 기록을 그대로 따르자면 34년에 이르는 꽤 긴 기간 동안 장안성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이 워낙 소략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장안성이 축성되었는지 여부는 『三國史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 장안성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평양성 성벽에서 발견된 각자성석의 존재는 『三國史記』 기록에는 찾을 수 없는 장안성의 축성 시기와 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⁴³⁾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자성석에는 장안성의 축조 시작 시기⁴⁴⁾와 축성 방향 및 축성 구간, 관리 감독자의 부명 또는 출신지, 관등명, 인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검토한 5종의 각자성석의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하자면 <표 2>와 같다.

<표 2> 장안성 출토 각자성석에 기록된 관련 내용

자료명	축조시작시기	축성방향	축성구간	부명·출신지	관등명	인명	비고
							발견시기 및 위치
①각자성석	己丑年 五月 廿八日	西向	11里		小兄	(相夫)若侔利	1766년-?
②각자성석	己酉(丑)年 (三) 月 廿一日	自此下向東	12里	物苟	小兄	佛湏(須)百頭	1829년-외성 남벽
③각자성석	己酉(丑)年 三月 廿一日	自此下向□(西?)	12里(?)	內部(百頭)	上位使	尒丈	1829년-외성 남벽
④각자성석	丙戌(十)二月中	自此西北	·	(漢城下)後部	小兄	文達	1913년-내성 동벽
⑤각자성석	·	自此東廻上	(?)里四尺	卦婁(盖切)	小兄	加群	1964년-내성 남벽

42) “築長安城”(『三國史記』陽原王 8년조, 552), “移都長安城”(『三國史記』平原王 28년조, 586)

43)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 과정을 살펴본 연구 성과로는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39』, 1992.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심정보,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한 문제점 I, II」 『북방사논총』 6, 2005와 같은 것이 있다.

44) 여기서 우선 주의해서 볼 점은 이 각자성석에 새겨진 기년이 공사가 시작한 해인가 아니면 공사가 끝난 해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완공된 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각자성석에 새겨진 해수는 공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성석마다 “自此”나 “始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면 “至此”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각자성석에만 유독 완공의 시기로 봐야할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즉, ①~⑤의 각자성석은 모두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새겨 넣은 것으로 봐야 하며 각자성석이 발견된 위치는 바로 축성이 시작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장안성 성벽의 축조 시기와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축조 시작 시기와 축성 방향 그리고 축성 구간이다.

먼저 각자성석의 축조 시기와 관련된 기년과 관련된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일단 “丙戌”이라는 기년을 분명하게 판독할 수 있는 ④각자성석과 기년이 남아 있지 않는 ⑤각자성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기년이 가장 빠른 ④각자성석이 발견된 구간은 장안성을 쌓기 시작한 552년부터 1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566년 “丙戌”에는 최소한 내성의 성벽은 축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⁵⁾ 성벽을 본격적으로 축조하기까지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한 것은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⁴⁶⁾, 장안성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축조 계획의 수립과 노동력 징발, 식량, 숙소, 도구 확보 등의 준비 사업,⁴⁷⁾ 왕궁의 건설⁴⁸⁾과 같은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⑤ 각자성석에는 기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⑤각자성석에 나타난 축성 구간을 분석해 보면 발견 구간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위로(東廻上)” 축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성의 동벽과 연결된다. 즉, 내성의 동벽에서 발견된 ④각자성석의 축조 구간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양자사이에는 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구획을 나누어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④각자성석의 “丙戌”年 전후로 한 시점부터 “己丑年”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쌓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①~③ 각자성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己丑年”과 “己酉年” 두 기년 사이에서 각기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①각자성석에 대해서는 『海東金石苑』의 내용을 따라 대부분 “己丑年”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나 田中俊明, 민덕식 등은 “己酉年”으로 판독하였다. ②각자성석의 기년은 『海東金石苑』과 『三韓金石錄』에는 “己丑年”으로 되어 있는데, 채희립과 최희림 등은 이를 그대로 따랐으나 다른 학자들은 각자성석 실물과 탁본을 판독하여 “己酉年”으로 판독하였다. ③각자성석은 『三韓金石錄』에 “己丑年”으로 되어 있는데 김희선 등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에 반해 田中俊明, 여호규, 심정보 등은 ②각자성석과의 위치와 내용의 관계를 고려하여 “己酉年”으로 보고 판독하였다. 즉, ①~③각자성석의 기년은 크게 3가지로 종합되는데 (1) ①~③각자성석 기년을 모두 己酉年으로 보는 관점(전중준명,

45) ① 각자성석과 같이 “始役”이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丙戌”이라는 시점을 반드시 내성의 축조가 시작된 첫 해로 볼 필요는 없다. 내성 성벽의 축조 시기는 “丙戌”年 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 빠른 시점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내성의 축조는 늦어도 丙戌年인 서기 566년에는 시작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46)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9~14쪽.

47) 최희립,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28쪽.

48)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49) 북한학계에서는 외성에서 발견된 “己丑年”을 기준으로 569년 이전에 내성이 완성되었다고 보았다.(최희립,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1쪽)

〈동북아연구〉

민덕식), (2) ①과 ③각자성석을 己丑年으로 ②를 己酉年으로 보는 견해(김희선), (3) ①을 己丑年으로 ②와③을 己酉年으로 보는 관점(여호규, 심정보)이 그것이다. 〈표 3〉

〈표 3〉 주요 학자들이 판독한 장안성 각자성석의 기년

	채희국	최희림	민덕식 ⁵⁰⁾	田中俊明	김희선	여호규	김창호	심정보	비 고	
									海東金石苑	三韓金石錄
①	己丑年	己丑年	己酉(丑)年	己酉年	己丑年	己丑年	己丑年	己丑年	己丑年	
②	己丑年	己丑年	己酉年	己酉年	己酉年	己酉年	己酉年	己酉年	己丑年	己丑年
③			己酉(丑)年	己酉年	己丑年	己酉年		己酉年		己丑年
④	丙戌	丙戌	丙戌	丙戌	丙戌	丙戌	丙戌	丙戌		

注: ①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②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③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고구려 평양성의 도시형태와 설계, 고구려연구 15, 2003 ④ 田中俊明, 「東 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백산학보』 67, 2003 ⑤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⑥ 여호규, 「평양성」,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역사재단, 2005 ⑦ 김창호, 「고구려 금석문의 인명 표기」,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9 ⑧ 심정보,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한 문제점 I, II」, 『북방사논총』 6,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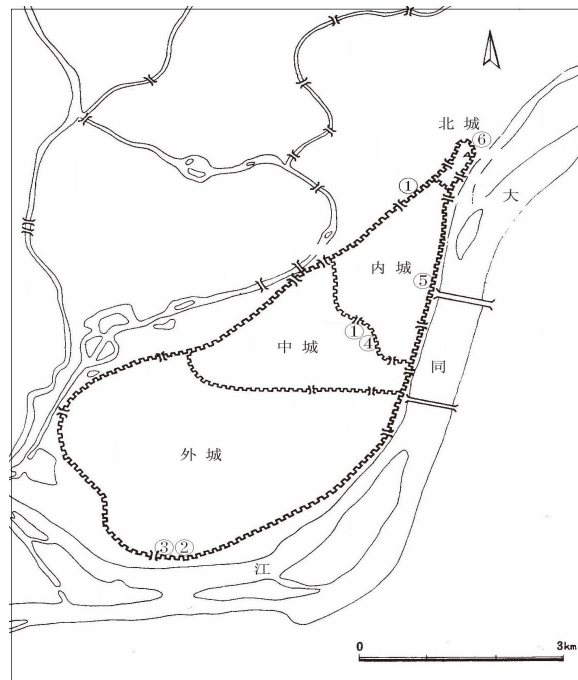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자성석에 기록된 기년들과 축성 거리를 비교해 보자.

논란이 되는 ①~③각자성석의 기년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장안성 성벽 축조 구간 간의 거리로 환산해보면 (1)은 35리 구간을 己酉年인 589년 이후에 모두 축조했다는 것이 되고, (2)는 약 2/3에 해당하는 23리 구간을 己丑年인 569년부터부터 쌓고 나머지 약 1/3인 12리 구간은 589년 이후에 축조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3)은 약 1/3에 해당하는 11리 구간을 己丑年인 569년부터 쌓고 약 2/3에 해당하는 구간인 24리의 구간을 己酉年인 589년 이후에 쌓았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고구려 당시에 사용했던 里制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구려 당시에 사용되었던 里制에 대한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아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단위를 추정할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필자가 판단하기에 장안성 축조에 사용된 거리는 최희림의 주장처럼 1리 = 1000척(1척 = 약 35cm, 1리 = 350m)의 단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⁵¹⁾ 그것은 각자성석이 발견된 위치와 거리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 km 거리법으로 환산해 볼 경우

50) 민덕식의 경우 ①, ③각자성석에 대해 먼저 “己丑年”으로 판독하였으나(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그 뒤에는 “己丑年”을 “己酉年”의 “誤”라고 하였다.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도시형태와 설계」, 『고구려연구』 15, 2003, 131쪽.) 여기서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51)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19~23쪽.

최희림의 견해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우선 각자성석의 발견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①각자성석을 제외한 나머지 각자성석은 그 발견 위치가 비교적 명확하다. 내성에서 발견된 각자성석은 ④와 ⑤각자성석인데, ④각자성석은 내성의 동벽 가운데 지점, ⑤각자성석은 내성의 동남쪽, 내성 남벽 가운데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②와 ③각자성석은 외성의 남벽에서 발견되었다. <그림3>



〈그림3〉 평양성 각자성석 발견 지점(①은 필자의 추정)

현재 평양성의 외곽 성벽의 거리는 약 16km에 이른다. 필자의 계측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간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비슷하게 약 16.34km로 측정되었다.⁵²⁾ <사진8> 이 가운데 각자성석이 발견된 위치를 위성사진에서 찾아보면 그 위치가 분명한 ⑤각자성석은 지금의 인민대학습당 서북쪽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에서 시작하여 남쪽→동남쪽→서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대동문과 옥류교를 지나 지금의 옥류관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파악되었다. <사진9> ⑤각자성석에 나타난 성벽의 축조 방향은 “自此東廻上”이므로 그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벽은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④각자성석의 내용에 있는 “自此西北行” 내용과 역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축성 구간은 각자성석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

52) 구글 위성사진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최희림은 ⑤각자성석에서 ④각자성석의 구간을 감안하여 내성 전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⁵³⁾ 필자의 계측 결과 내성의 전체 길이는 약 6.8km이었으며〈사진10〉 ⑤각자성석에서 ④각자성석까지의 구간은 2.5km로 최희림의 주장보다 약간 긴 것으로 측정되었다.⁵⁴⁾



〈사진8〉 장안성 전체 구간(16.34km) 〈사진9〉 ⑤각자성석 구간(2.54km) 〈사진10〉 내성 구간(6.79km)

한편 ②각자성석의 발견 위치는 지금의 통주통일대가대교 북쪽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된다. 각자성석에는 동쪽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곳은 지형은 대동강변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어진다. 북서쪽을 따라 약 4.2km를 올라가면 정확하게 내성의 동남모서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최희림이 제시한 거리와 완전하게 일치한다.⁵⁵⁾ 〈사진11〉 그의 주장대로 각자성석의 기록된 12리 = 4.2km(1리 = 약 350m)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 일단 주목해 볼 수 있다.

③각자성석은 ②각자성석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독에 있어 중요한 몇 부분에 있어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성벽의 방향과 축성 구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②己酉(丑)年 三月卅一日 自此下向 東十二里……

b-③己酉(丑)年 三月卅一日 自此下向 □下二里……

a와b 즉, ②와 ③각자성석은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3월 21일이라는 동일 날짜에 축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는데다 동일한 형식의 문장 구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일단 동일한 해에 성벽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기년을 다르게

53)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1쪽.

54) 최희림은 2.1km라고 하였으나 이보다 약 400m 정도 더 길었다.

55)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0쪽.

불 경우 “己丑年”인 569년에 먼저 서쪽으로 성벽을 쌓고 20년이 지난 “己酉年”인 589년의 동일 날짜와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동쪽 성벽을 쌓기 시작한 셈이 된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발견 장소와 문장의 구조상 일단 동일 시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두 기년 가운데 어느 하나는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②각자성석의 경우 기년은 최근 여러 학자들이 “己酉年”으로 판독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③각자성석 역시 ②각자성석과 같이 “己丑年”이 아닌 “己酉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②와 ③각자성석이 모두 “己酉年”이라는 견해 역시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해당 각자성석을 판독하고 엮은 김정희, 오경석은 각자성석의 기년을 왜 “己丑年”으로 보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현전하는 ②각자성석의 경우 “己丑年”보다는 “己酉年”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인데 당시 이들은 각자성석을 실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희, 오경석과 같은 금석학의 대가들은 왜 “己丑年”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장안성의 내성을 쌓은 시기와 외성을 쌓기까지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丙戌年부터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 해당하는 내성 구간의 성벽을 축조하고⁵⁶⁾ 왜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외성을 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중성의 축조 기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성의 축조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중성의 성벽이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장안성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진 3년이 지난 뒤에 성곽의 기본 시설인 성벽, 특히 외성의 모든 구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②각자성석의 기년이 “己酉年”이라고 하더라도 ③각자성석의 기년을 반드시 “己酉年”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己丑年”과 “己酉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 두어야 한다.



〈사진11〉 ②각자성석 구간(4.18km) 〈사진12〉 ③각자성석 구간(4.21km) 〈사진13〉 외성 ②, ③구간(약 8.4km)

56) 대표적으로 최희림의 경우 내성의 축조 기간을 566년(丙戌年) 12월에 쌓기 시작하여 외성을 쌓기 시작하는 569년(己丑年) 5월 전에 내성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19~23쪽)

한편 축성 방향과 축성 구간에서 있어서는 ②각자성석 구간은 동쪽으로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나란히 발견된 ③각자성석 구간은 서쪽으로 쌓을 수밖에 없다. 즉, □에는 “西”자가 새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으며, □다음에 들어가는 글자에 “下”자가 들어갈 경우 “自此下向西下二里”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되며⁵⁷⁾ 성벽을 쌓은 구간인 “二里”는 다른 각자성석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이 역시 민덕식의 주장처럼 “十”자로 보는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⁵⁸⁾ 그렇다면 ③각자성석의 내용은 서쪽으로 12리 구간을 쌓았다고 여겨지는데 12리는 ②각자성석과 같이 4.2km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그리고 이 구간의 성벽 역시 통주 통일대가대교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을 따라 가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어지면서 안산의 북서쪽에서 멈추게 되는데 ②각자성석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방향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방향의 표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12〉, 〈사진13〉

발견 장소가 불분명한 ①각자성석은 먼저 “己丑年”이라는 기명과 관련하여 田中俊明의 경우 “己酉年”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경우 35리⁵⁹⁾에 해당하는 장안성 대부분의 성벽이 천도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4년 만에 전구간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①각자성석의 기년은 “己丑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각자성석에는 내용에는 다른 것과 달리 “始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를 통해 “己丑年”에 장안성의 성벽이 비로소 축조되기 시작되었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④각자성석에 이보다 빠른 “丙戌年” 기년이 이미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①각자성석에는 “西向”과 “11里”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②~⑤각자성석의 발견 위치와 축성 구간을 비교해볼 때 ①각자성석의 발견 지점은 일단 전체 장안성의 북동쪽의 어느 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①각자성석의 발견지점을 중성 북서벽이 시작하는 지점을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③각자성석과의 축성 거리와 비교해보면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힘들다.⁶⁰⁾ 최희림의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③각자성석의 11리 구간은 약 3.85km에 해당하는데, ③각자성석이 끝나는 안산 북서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찾아보면 ①각자성석의 시작 지점은 약 2가지 장소로 압축될 수 있다. (1) 울밀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으로 내성벽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내려와 안산 북서쪽까지 이르는 약 3.85km 구간이 하나 있고〈사진14〉 (2) ⑤각자성석이 발견된 인민대학습당 서북쪽에서 내성벽을 따라 북서쪽으로 올라와서 외성벽에 이르러 남서쪽으로 내려와 안산 북서쪽까지 이르는 약 3.85km의 구간이 있다. 〈사진15〉 물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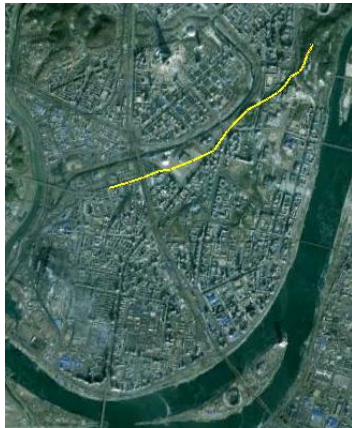
57)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39, 1992, 45쪽.

58) 이에 대해서 심정보는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심정보,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한 문제점 I, II」 『북방사논총』 6, 2005, 376쪽.)

59) 최희림의 기준에 따르자면 35리는 약 12.25km이다.

60) 심정보의 경우 내성 남서모서리와 중성의 북벽 시작점이 만나는 지점을 ①각자성석의 시작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곳을 기준으로 안산 북서쪽까지는 약 2.6km가 조금 넘는 거리였다. 11리로 추정되는 3.85km 떨어진 지점은 전체 장안성의 북서모서리 지점 부근까지 이어졌다.

기에도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지점은 ④각자성석의 "自此西北"다음에 연결될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짧은 구간이나 ⑤각자성석이 발견된 지점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짧은 구간의 성벽과의 연결 지점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⁶¹⁾ (2)지점은 축성 방향에 있어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축성 방향을 따지자면 북쪽→남서쪽이 되기 때문에 "西向"과는 방향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④각자성석 구간의 성벽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설블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을 막론하고 내성의 일부분과 겹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장안성의 성벽 축조가 원래부터 내성과 외성을 동시에 구축할 것을 염두해 두고 축조 계획이 세워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사진14〉 ①각자성석 (1)예상구간(3.85km)



〈사진15〉 ①각자성석 (2)예상구간(3.84km)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중성 특히 중성의 남벽 구간인데 여기서는 내성이나 외성과 같이 축조 년대를 추측할 만한 각자성석과 같은 확실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②각자성석의 축조 구간은 중성 남벽의 동쪽 끝을 지나치면서 정확하게 내성의 동남모서리까지 연결되며, ③각자성석의 축조 구간은 중성의 북서벽까지 이어지지 않고 외성의 선요문 부근에서 ①각자성석 구간의 끝과 서로 만난다. 만약 장안성의 축성 계획에 중성이 범위에 속하였거나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조되었다면 ②각자성석의 축조 구간은 지금의 대동교 서쪽인 중성의 남벽 동쪽 끝에서 서로 만나야 하며 ③각자성석 구간은 중성의 남벽 서쪽 끝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에 부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판단하자면 고구려 당시 중성이 축조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61) ⑤각자성석에서 내성 남서모서리까지는 약 1km가 조금 넘는 짧은 구간이다.

한편 북성에서 확인된 ⑥각자성석은 城底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각자성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42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는 내용을 미루어볼 때, 某王 42년이나 북성을 42년 동안 축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42년이라는 숫자는 장안성을 축조하는데 걸린 전체 공사 기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즉, 552년으로부터 42년 뒤인 인 593년(영양왕 4년, 癸丑年) 북성이 완성하면서 장안성의 대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장안성의 축성 과정

	內城	中城	外城	北城
①채희국	552~569	922	552~569	247~
②최희림1	566~569	569~579	569~579	566~569
③최희림2	566~569	569~570년대 말	569~570년대 말	566~569
④田中俊明	566~?	고려 초	589~	589~
⑤민덕식	?~566		589~	589~593
⑥심정보	566~569	569~	589~593	589~593

注: 참고문헌은 〈표3〉와 것과 같음

V. 맺음말

장안성에서 출토된 각자성석의 내용을 토대로 장안성의 축성 시기와 축성 과정을 살펴본다. 552년 장안성을 쌓았다는 『三國史記』 기록과 달리 그 시점부터 바로 장안성의 성벽이 축조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성벽 축조 이전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축성 이전의 구체적인 준비, 왕궁의 건설과 같은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축조는 ④각자성석이 발견됨에 따라 늦어도 “丙戌年”인 566년에는 내성에서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내성에서 발견된 ⑤각자성석 구간은 ④각자성석 발견 지점까지 연결되는 것을 통해 볼 때 빠르면 “丙戌”년부터 늦어도 “己丑年”을 전후로 한 어느 시점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가운데 ④각자성석은 끝나는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성을 몇 구간에 걸쳐서 축조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④각자성석의 축성 방향이 “西北”향이기 때문에 최희림의 견해처럼 내성 북서 구간에 별도의 축성 구간을 설정하여 3구간으로 나누었을 수도 있으나 ①각자성석 구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2구간으로 나누어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외성 구간은 크게 3구간으로 나누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①각자성석 구간은 “己丑

年”인 569년부터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①각자성석을 포함하여 ②,③각자성석의 기년을 모두 “己酉年”으로 본다면 내성의 일부 구간을 포함한 외성 전체가 장안성으로 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 내성이 축조되기 시작한지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그것도 4년이라는 놀랍도록 짧은 기간에 모든 성벽을 축조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①각자성석의 축성 시작 시기는 “己丑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각자성석이 발견된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체 장안성에서 북동쪽에 해당하는 어느 한 지점으로 추정된다. ②~⑤ 각자성석의 축성 구간과 비교해 보면 ①각자성석이 발견된 위치는 내성의 북동벽이나 내성의 남서벽 중 어느 한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①각자성석이 축조된 구간은 내성벽의 특정 지점에서 출발하여 외성 구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외성의 서쪽 구간으로 여겨지는 ③각자성석 축조 구간은 “己丑年”과 “己酉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발견된 ②각자성석 구간은 “己酉年”부터 쌓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는데 ②와 ③각자성석은 발견 위치가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③각자성석 구간 역시 “己酉年”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내성의 축조시기와 외성의 축조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너무 크고, 담당 구간이 짧은 시간에 비해 너무 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①각자성석 구간과 동일하게 ③각자성석 구간 역시 “己丑年”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만약 그렇다면 ①각자성석은 내성에서 ③각자성석은 외성에서 각각 동일한 시점에서 축성을 시작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특히 ①각자성석 구간의 시작점이 내성에서 출발하여 외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내성과 외성을 함께 쌓을 것을 계획하고 성벽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장안성으로 천도가 단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인 “己酉年”인 589년에는 ②각자성석의 구간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내성의 축조 시점인 “丙戌年” 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己酉年”까지 장안성의 성벽 축조는 끝나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중성의 축조가 계획되어 그에 따라 축조되었다면 외성의 성벽이 중성의 남벽 동서 양쪽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①과 ③각자성석의 축조 구간이 만나는 지점과 ②와 ⑤각자성석의 축조 구간인 내성모서리 지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성의 남벽 양쪽 끝을 지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구려 당시에 중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장안성의 성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착공해에서 부터 42년이 지난 시점으로 ⑥각자성석이 발견된 북성이 완공되면서 장안성의 대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내성-외성-북성 순으로 장안성의 성벽 축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海東金石苑』

『三韓金石錄』

『平壤續志』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 외국문중합출판사, 1989.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005

김창호, 「고구려 금석문의 인명 표기」,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9.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론총』 39, 1992.

민덕식, 「고구려의 평양성각자성석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3, 1993.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도시형태와 설계」, 『고구려연구』 15, 200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서길수, 「고구려 축성법 연구(1)」, 『고구려산성연구』, 학연문화사, 1999.

심정보,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과정에 대한 문제점 I, II」 『북방사론총』 6, 2005.

여호규, 「평양성」,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역사재단, 2005

이원근, 『삼국시대 성곽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田中俊明, 「高句麗長安城城壁石刻の基礎的研究」, 『史林』 68-4, 1985.

田中俊明, 「東 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백산학보』 67, 2003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2, 1967.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한인호·리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 도시 리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

《Abstract》

Reexamination on the Construction Process used in the Ramparts of The Goguryeo Jangan Castle

Chung, Won-Chul

The Goguryeo Jangan Castle is a combined type of castle town, with a fortress and a flatland castl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mid-sixth century. A few stones of the castle, on which writing was inscribed, were found in Jangan Castle. The writing mentions the start of construction of the castle, construction directions, measurements, and the supervisor's original address, position, and name. The start of construction date, directions, and measurements written on the stones ar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is study assume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castle by re-analysing the Gakja Stone Ramparts that were built in the Jangan Castle. It is assumed that castle construction began in 566, Byeongsulnyon, at the latest, and construction of part of the inner castle and the west section of the southern wall of the outer castle in 569, Gichuknyon. The castle wall was not completed until after 586, when Goguryeo decided to transfer the capital, and in 589 construction began on the wall connected to the eastern part of the outer castle. Therefore it took more than 20 years, from 566 to 589, to complete the wall of Jangan Castle.

Key Words : Pyeongyang Castle, Jangan Castle and Gakja Stone Rampart

투고일 : 2010. 6. 30 / 심사일 : 2010. 7. 10 / 심사완료일 : 2010. 8. 25